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나침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발행인 : 유 진 형
편집인 : 박 상 호

2. 기독교인재육성과 조만식 장로
4. 이단 · 사이비에 대한 교회의 대책
7. 세계를 품는교회 (열린교회)
9. 무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세요

2005년 7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80호

교육이 민족의 미래를 좌우한다

최근 경기도 연천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이 평소에 폭력, 살인등과 관련된 인터넷 게임을 즐겼고 이것이 비극의 단초가 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문화진흥원(KADO)은 2004년 한 해 인터넷 중독 상담 총 1만 8299건 중 49%인 8978건이 게임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인터넷 게임 중독을 호소한 사람 중에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거나 게임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중학생이 8909명으로 가장 많이 인터넷 중독 상담을 의뢰했으며 고등학생(4739명) 초등학생(3800명) 대학생 순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중독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통부와 게임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중이다. 그밖에도 전화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티켓다방, 룸살롱, 비즈니스클럽, 단란주점, 원조교제 등등 불건강한 성문화가 희한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의 어린이부와 중고등부도 이 사회풍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최고의 컴퓨터 보급률 1위, 컴퓨터관련 분야 석권, 그러나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크고 작은 문제에 올바른 신앙 안에 자라야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아 이에 대한 대안과 함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훈련과 교육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교육과 제자훈련

세계선교역사에서 우리나라는 경이적인 교인증가율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884년 처음 복음의 공식적인 선포이후 100년 만에 800만 그리스도인을 확보하게 되었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가? 다름 아닌 교육과 제자훈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기독교는 낙항한 유림들과 정치 소외 계층 그리고 지방의 사대부들을 통하여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기독교를 통하여 민족정신 교육이 이루어졌고, 곧 기독교 시민정신으로 연결되어서 많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직접적인 투쟁에 의한 국권회복의 차원에서 일보 전진하여 민족정신, 기독교 정신을 가진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국의 70여개 중·고등학교중 기독교계통의 미션스쿨이 50여개가 넘었던 것만 보아도 복음전파와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얼마나 빨리 인식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현재의 북한지역 평양과 신의주 쪽은 기독교가 대중의 종교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평양을 등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고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은 대개가 그리스도인이었다

교회 성장세의 둔화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금 교회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하강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중고등부의 신앙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와 헌신이 필요하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눈에 띄게 두드러진 좋은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회장 김종준목사)에서는 '다시오실 예수님' 이라는 주제로 '2005 여름성경학교와 캠프준비를 위한 교사특별강습회'를 개최한다. 새노래 율동을 비롯하여 교사 사명부흥회, 영상으로 배우는 재림, 캠프프로그램, 영어캠프지도, 심령변화를 위한 여름행사, 페이스페인팅, 성경학교배가 부흥전략, 어린이 지속전도프로그램, 창작레크댄스 등 여름 성경학교 및 캠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40여 강좌가 진행된다. 한편 십대 청소년들에게 예수의 꿈을 심고, 삶의 참된 목적을 갖게 하는 PASSION 2005 HCCC 전국청소년여름수련회'가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어린이전도협회의 여름특별 프로그램, 예수사랑운동, 예수제자운동 청소년 캠프, CCF의 청소년연합캠프도 눈여겨 볼만하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2:52). 이번 여름,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소망한다. [편집부]

이달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 6.25의 전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첫 번째로 하는 민족이다. 나라의 위기에 이 나라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불 같아나고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 연천의 김일병 총기사건

8명의 죽음과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김일병 사건으로 인한 많은 파장이 사회와 군 내부에도 일어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병영생활이 변화되고 군 기강이 바로서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 황우석 교수 신드롬

과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한 성과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생명존중의 길을 벗어난 연구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바른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대안마련

춘천에 대한 경제회복의 기대치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이 있다. 춘천의 경제가 활성화를 될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 되며 깨끗하고 거룩한 도시로 발전될 수있게 하소서

· 가을 춘천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를 위해

춘천의 영적기상도를 변화시킬 거룩한 대회가 이루어져 과반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시민들이 복음을 통한 강력한 도전을 받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소서

닭갈비를 춘천명물로 알린 집

춘천명물닭갈비막국수

◆ 춘천명물 숯불닭갈비 메뉴 ◆

숯불닭갈비 감자옹심이
숯불돼지갈비 묵 사 발
양념삼겹살 영양삼계탕

전화033)252-4777
www.ccmm.co.kr
raiselee@hanmail.net
차량항시대기(40인승)



춘천시모범음식점
◆ 춘천명물닭갈비막국수 메뉴 ◆

뼈없는닭갈비 감자전
쟁반막국수 공기밥
막 국 수 사 리

본관:033)257-3069
별관:033)255-2069
팩스:033)252-2069

※ 대형주차장 좌석 250석 어린이놀이터 삼천동 중도관광지 입구사거리 ※

특 집

기독교 인재육성과 조만식 장로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조만식 장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사신 분이다. 그는 말로 살지 않았고 삶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길러 하나님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살게 했다.

조만식 선생은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키운 교육자였다. 스승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임을 그의 삶에서 발견한다. 오산학교의 선생이었고 교장이었던 조만식 선생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아 한국민족과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 서울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함석헌 선생, 백인제, 주기용, 김항복, 김홍일, 이호, 임극제 등이 있었다. 특히 민족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조만식 장로는 교육자로 섰다.



신사참배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을 때 사상적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강요한 거짓 종교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계가 강력하게 신사참배에 반대하지 못했다. 불교 천주교는 제대로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기독교계에서도 신사참배를 용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조만식 장로는 제자들에게 신사참배에 절대 가담하지 못하도록 교육하였다. 그의 제자 중 그와 함께 한 분이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였다. 주목사는 신사참배에 반대한다고 네 차례나 검거되었다. 그러나 그는 박해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조 만 식 장로



주 기 철 목사



한 경 직 목사

주목사가 1차 검거에서 석방되어 나왔을 때 그는 산정현교회 신자들에게 "다섯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말했다. "첫째, 즉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즉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산정현교회의 2000여 신자들은 모두 을 수밖에 없었다.



주 목사는 1940년 6월 네 번째로 투옥되어서 1944년 4월21일에 순교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는 유서를 써서 집에 보냈다.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부어올랐습니다. 생명보험을 든 200원을 영진이 장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는 막내 광조를 공부시키시오. 어머님을 잘 봉양하십시오. 어머님께는 죄송합니다." 이 유서를 받아든 오정모 사모는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것을 보낸 것이냐?" 고 말했다. 이런 믿음의 이네가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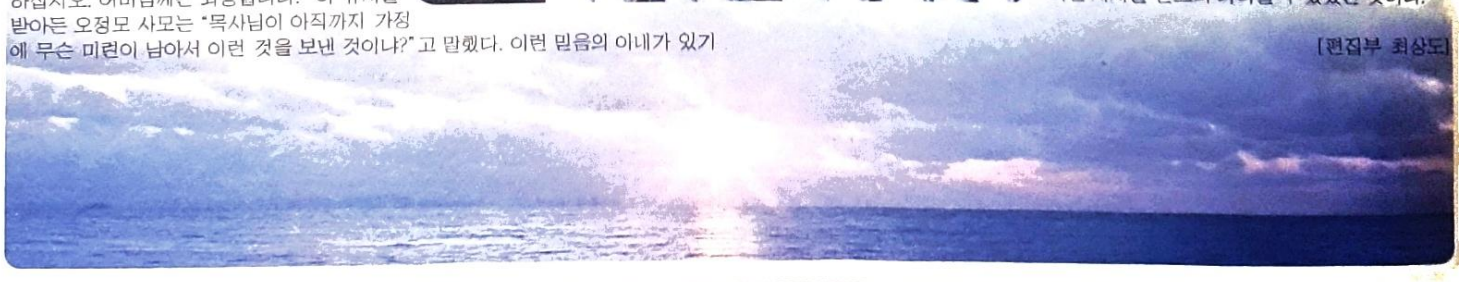
이런 위대한 순교자를 조만식 장로가 길러낸 것이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아침 6시에 학생들과 같이 일어나 아침체조를 같이 하고 학생들 틈에 끼어 구보도 같이 하였다. 그때는 사환이 없었고 청소를 위시하여 난로 피우기 장작패기 같은 일은 선생과 학생들이 맡아서 하였다. 그는 기도회를 주관하여 기도를 올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였다. 그는 언제나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고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맑은 물결을 일으켰다."

조만식 선생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 각별한 애국자였다. 조만식 선생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는 예수 믿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었다. 양복은 벗어버리고 한복만 입었고 일본 물건 안 쓰고 조선 물건만 썼다. 그는 한 평생 조선물산 장려운동을 펴 나아갔다. 금주 · 금연 · 아편 · 축첩 · 매음 · 잡기 등 사회악 정화운동도 일으켰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사회와 민족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사회와 민족을 살리게 했다. 그러나 조만식 선생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였지만 국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는 아니었다. 해방 후 일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복을 가하는 것을 반대했고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한 박애주의자였다.

조만식 장로는 교회를 사랑한 봉사자였다. 조만식 선생은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집사와 장로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했다. 예배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았고 당회에서는 발언을 별로 하지 않았고, 꼭 필요한 것만 말했다. 조만식 장로는 감옥 밖에서, 제자인 주기철 목사는 감옥 안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펴 가면서 한국교회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안도명씨가 지적한 대로 "조만식 선생이 그 교회의 장로였고, 주기철 목사가 그 교회의 당회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조만식 장로는 월남할 기회가 있었으나 "어찌 나 혼자만이 살기 위하여 이곳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월남을 거부하다가 1950년 10월 18일 평양 감옥에서 총살을 당하므로 '순교'와 '순민'의 죽음을 죽었다.

이러한 위대한 교육자가 있었고, 뜻을 같이하는 제자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민족적인 지지를 받으며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편집부 최상도]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 영 춘
최 영 조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김 춘 배 김 미 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 비 타 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사랑의 집짓기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2005년 사랑의 집짓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회법조 지원봉사의 날을 정하여 돈독하시는 교회의 사랑을 나누는 세계의 기회가 되시기를 후손합니다.
■ 교회법 자원 봉사의 날 운영
◆ 교회법 자원 봉사의 날 : 7월 11일(월) 접수 선착순 30명
7월 12일(화) 접수 선착순 30명
7월 14일(목) 접수 선착순 30명
◆ 신청 기간 : 7월 1일(금) ~ 9일(토)
◆ 집짓기현장 : 신북읍 천전 4리(상천초등학교 뒤)
◆ 대 상 : 교회법 단체 신청, 희망하시는 성도님 개별 신청
◆ 신청 방법 : 자원봉사자는 7월 8일 전까지 참가 신청서 제출
(인터넷 주소 참고: http:// www.habitat.or.kr/)
◆ 참 가 비 : 1인당 / 일만원(W10,000원)
◆ 기 타 : 자원봉사활동 확인증 발급
문의처 ☎ 254-0009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는 평화감리교회 담임목사이신 한균 목사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조: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춘천지역의 복음화와 성시화운동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춘천에서 목회를 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교회 개척당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평화교회 소개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저는 신학대 감신대에 재학 중이었던, 1978년 4월 23일, 세 가정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 초기부터 세계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세계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주신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미국선교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개인면담을 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의 사명으로 확신했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 당시 영어로 방송되었던 극동방송을 열심히 청취하는 등 독학으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겠다는 꿈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로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최초만 선교사님을 제1호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저희 교회가 설립한 인도살롬선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인도지역에 12개 교회를 개척,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교회 출신 선교사는 15명, 직접파송한 선교사는 5명입니다. 그밖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협력,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목사님의 비전과 열정을 보니까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김덕실 목사님(신안교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도 원래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 훈련을 받고 파송교회를 찾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던 중에, "너가 선교사의 마음을 알았으니,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평화교회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장기적인 선교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10년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명 선교사 파송, 100교회 설립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1가정 1교회 설립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선교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목회의 목표가 아니라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목회자로서 세계선교에 도구가 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회의 비전입니다.

조: 인도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하셨는데,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인도지역은 선교하기에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선교초기에는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건물을 세우는 일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선교사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한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요. 저희 교회에서는 인도 테라둔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현지인 목회자를 양육, 배출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여 현재 배출된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들을 중심으로 초교파적인 살롬 교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신학교와 선교사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함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2005년 5월 24일에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사 훈련센터"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사훈련센터를 세운 이유는 이 지역이 동남아시아 및 인도차이나 반도를 복음화 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죠. 이 훈련센터에서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인도와 중국 등에서 선별된 현지인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교회 개척사역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명 받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 교회는 교회 운영비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 선교를 위해서는 소명과 언어준비(영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 개척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어훈련 특히 영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주일 낮 1부 예배를 영어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지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어예배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정: 평소에 목사님께서는 춘천지역에 기독교문화정착을 위해서 남다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기독교 문화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세속문화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라고 할 때 영화, 미술, 음악콘서트 등을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제 생각에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들은 이벤트로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벤트만 가지고서는 기독교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삶의 양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들의 세계관 - 인생관, 정치관, 물질관 등을 보면 기독교적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들도 돈을 벌면 반드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반대적으로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는데, 마인드는 기독교적이 아니라 세속적입니다. 물론 기독교문화가 정착되고, 사회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앞으로 한 세대는 더 지나가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문화 정착사역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문화정착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를 통한 신앙운동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천편일률적인 부흥회적 신앙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테마별 신앙세미나 및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적인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키게 되고, 그래야 도시가 성시화 되고, 국가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운동이라는 것은 영성운동과 매우 비슷한 개념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영성운동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능력 받고, 훈련해서 은사 체험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운동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하는 보편적 운동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성이 빠진 문화운동은 일시적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요즘,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미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던 시대에는 가난이 가장 큰 해결과제였으나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도전할 수 있는 비전과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예배를 말씀세미나, 성경공부, 신학공부로 바꾸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 앞에서 바른 신자가 되도록 깨우쳐주며 영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교회 성장이란 교인의 수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므로 타 교회의 외형적 성장방법을 단순하게 모방하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맞는 진정한 성장의 방법론을 찾아야만 합니다.

정: 저는 성시화운동과 관련해서 인재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춘천성시화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기관형성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기관형성이 되어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지역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 10월중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임원들에게 조언의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선교대회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신앙부흥집회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행사입니다. 전자는 아무래도 손쉽고 효과가 빠른 부흥성회 형태로 될 것 같고요, 후자는 엔터테인먼트를 겸한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의 크리스천 예술행사로 구성될 것입니다. 전자는 주로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폐쇄된 집회라 한다면 후자는 범시민적 개방된 집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비로서 진정한 선교대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 마지막으로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란 그동안 일종의 춘천 기독교인들의 친목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넌 중 행사나 몇 가지하면 되는 정도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참여도도 매우 낮았고, 교회적 관심들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합운동과 성시화운동은 전 교회적 관심사와 비 기독교인들에게까지 관심 있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설정 되어야 비로소 필요한 인력 자원과 기금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연합회에 참여하라고만 하지 말고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소재를 만들어 교회와 교인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임원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시 : 2005년 6월 27일
진행 : 조영춘
글정리 및 사진 : 정재호, 김미경

이단 사이비에 대한 교회의 대책



신촌교회 김용섭 목사

오늘날 기독교계에 일고 있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며 많은 연구와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특별히 이 문제는 어느 개 교회와 개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단 사이비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범 교단,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대처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교단이나 교파 상호간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소위 건전한 기독교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단적인 사상과 형태를 밝혀서 바른 교리와 교회공동체를 확립하는 일은 전체 교회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 글을 통해서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그리스도인과 교회 및 사회를 보호하며 이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이단 판정의 신학적 표준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난 이단들을 판정하는 신학적 표준을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판정의 기준이 되는 신학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 난해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교회 2천년 등안 논의되고 축적되어 온 신학 중에 어떤 신학적 입장을 이단 판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신학의 조류는 보수정통신학과 자유주의신학으로 양극화 현상으로 갈라져 있고, 또 너무 다양화되어 있다. 이들의 너무 현격한 신학적인 차이는 쉽게 좁힐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신학적 정황에서 어떤 입장에 서서 이단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신학적 표준문제가 심각히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단의 개념규정과 판정의 표준 설정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논하는 것을 피하고 기독교 교단 교리의 표준인 신구약 성경, 세계 보편교회의 신조인 니케아 신조(A.D. 381)와 칼케돈 신조(A.D. 451) 및 세계 개신교의 신앙고백 전통들을 세우게 된 고대 교회 공의회들의 교리결정과 종교개혁 주의자들이 강조한 교리와 신학전통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판정해야 한다고 본다.

2.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의 정의

1) 이단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이단'이라는 말은 당파심, 교회의 통일을 파괴하는 것, 불신앙, 그리스도교를 사칭하는 자, 전통적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다른 교설 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거짓으로 거부된 신학적 교리와 신앙적 체계를 뜻한다.(렘 20:29, 24:5; 롬 16:17; 고전 11:29; 갈 5:20; 요한 일서 2:18, 4:1; 딤전 4:2; 딤후 3:8; 딛 3:10; 벧후 2:1; 유1:18 등 참조)

2) 사이비, 사이비 신앙운동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사이비' 혹은 '사이비 신앙운동'은 이단으로 단정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신앙운동'을 말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사이비 신앙운동은 특별집회나 잘못된 부흥회나 일부 기도원 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광신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양태를 말한다.

이단과 사이비라는 개념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김영한은 "이단이란,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무리들이다. 사도적 교회가 믿어 온 참신앙과 정통교리를 받지 않고 거짓 신앙과 교리를 주장하는 집단이다"라고 하였고, "사이비란 실제로 이단이나, 현상적으로는 마치 정통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단의 위장적 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단보다 더 무섭다. 이단은 그 정체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으나, 사이비는 스스로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탁명환은 "이단들의 공통된 점은 정통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확대해석 하거나 전부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성경의 일부를 너무 강조하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함으로 성경 전체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종성은 정통과 사이비와 이단의 판단 기준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토대 위에 2천년 등안 정통적으로 신봉해 온 교리나 신학적으로 바로 선 (1)신관, (2)그리스도관, (3)성령관, (4)성경관, (5) 교회관, (6)인간관, (7)종말관 등에 있어서 일곱 가지 교리를 전적으로 믿는 입장을 정통이라 하고 부문적으로 믿을 때 사이비라 하고 전체를 반대할 때 이단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니까 사이비는 정통과 이단 사이에 위치한 개념으로 정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완전히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매우 모호한 입장을 말한다.

그 밖의 용어들로서 '사교(邪敎)', '신흥종교', '비(秘)의 종교(흑마술, 악령숭배, 심령술, 점성술, 영매자(靈媒者), 불 위로 걷기, 점, 유령, 최면술, 마술, 초심리학, 심령수술, 장미십자가, 사단, 사단숭배, 마법 등등의 종교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종교현상들은 교리나 의식이나 조직된 체제를 갖춘 집단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사이비 신앙운동이나 기독교 이단을 조장하고 번성케 하는데 일익을 함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이단분별의 기준 원리

역사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활동하여 물의를 많이 일으킨 중요한 이단들을 중심으로 그 이단성의 교리적 유형을 아는 것은 기존의 이단을 파악하고 새로운 이단이 나타났을 때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유형들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단을 분별하는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단 분별의 유일한 표준은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표준이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적 근거가 도무지 없는 어떤 교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일단 이단으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록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신학적 타당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의 해석은 결코 경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인간은 언제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경 해석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구원론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단이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교리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올바른 구원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과 상위 되는 구원론을 가르친다면 이단이라 해도 과오가 없을 것이다.

5면에 계속 ▶

춘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쉼터 양로원
정국성 목사


의암기도원전경

예배당

양로원 (1월준공)

휴식공간
예배 안내
● 주간 집회
매주:월~토요일 까지
시간 : 새벽 6시, 낮11시, 저녁8시
● 목요 찬양집회 - 저녁8시
● 금요 철야집회 - 금요일 밤10시부터
쉼터양로원 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치매중풍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사정상 가족이 모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말기암환자 요양 및 기도생활
주소: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31-2(의암댐발전소 의암유원지내)
전화:(033)262-7923~4, 262-5694, 010-6388-7929

기독교 대한감리회 창 제 교 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 담임목사 김 명 분
(기독교 대한 감리회 동부연회 춘천 남지방 감리사)
◎ 시무장로 : 김완규, 홍정화, 강철주, 김인배, 김길수, 김준규, 이정희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3리 1반 885번지 ☎ 033)261-3959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4면에 이어 ▶

넷째, 구원론에 있어서 분명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지만 의심스러운 대상에 대해서는 삼위일체론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은 구원론과 직결되어 있기에 삼위일체론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그 구원론은 잘못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종말론 및 윤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교리들은 모두 구원론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종말론이나 윤리는 구원론의 열매에 해당한다.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반드시 종말론 곧, 하나님나라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인 삶의 열매에 있어서 오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교리는 마음속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윤리는 삶의 현실 속에 반드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단 판정의 마지막 표준은 윤리, 곧 그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단을 분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원리가 된다.

그러므로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성경의 해석, 구원론, 삼위일체론, 종말론 및 윤리적 삶의 순서로 점검하든지 혹은 역으로 윤리적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종말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정경 및 계시론의 순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닫는 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유명한 가라지 비유를 교회와 이단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이단의 발생원인은 교회에 있다고 본다. 가라지 비유를 보면 교회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다. 고로 이단들의 발생은 교회의 잘못으로 빚어진 것이니 교회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이단들을 볼 때 교회는 먼저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단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그것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기존의 교회에서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단 안에는 교회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강조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기적', '치유', '예언' 등과 같은 '신비적인 종교행위'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것들은 원래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교회가 등한히 하거나 잊어버린 것처럼 지내고 있는 중, 이단들이 이를 악용하고 왜곡시킨 것이기에 교회는 이를 등한히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또한 이단 사이비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교회가 평신도들에게 바른 성경공부를 시키고, 교리, 기초신학, 교회 신앙생활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다고 본다. 교회가 물량주의 혹은 세속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교회의 계층화를 막아야 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신도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충족시켜 주는 치유적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본 글은 정행업 목사(예장(통합) 이단 사이비문제 상담소장)의 '기독교 이단의 개념'의 글과 최태영 교수(영남신학대)의 '이단 이해와 대책' 이란 글과 인터넷상의 각종 이단 사이트에 올리있는 글들을 참고하여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CC 클럽[춘천 기독실업인회의 회복운동]

거룩하고 깨끗한 도시로 변화 시키는 십자가 군병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목사

지난 6월 11일 토요일 이른 아침 7시 예광교회에서는 몇몇 뜻있는 분들과 성시화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독실업인회의 '회복과 부활'을 위해 함께 모여 첫 번째 기도회를 가졌다. 자생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여 모이고 있는 이모임은 단순한 기독실업인회가 아닌 경제를 위한 십자가군병이 되어 이 땅을 거룩하고 깨끗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첫째, 교계의 부흥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실제적인 모임이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와 지역경제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둘째, 각각의 기업들이 발전을 하려면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눠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임을 만들어서 CEO가 가져야 할 자질과 품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CEO가 가져야 할 리더십과 미래 사회의 변화 또는 기업의 변화 등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현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꾼들로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춘천의 향토적 상황에 필요한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현재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방안과 제안들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민, 관이 서로 대화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실제적인 과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자리와 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직 작은 무리들의 모임이지만, 이 모임을 통해 교제를 나누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크게는 지금의 작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로, 다국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학제도를 만들어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믿고 소망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인들 모두가 눈을 세계로 돌려 세계의 필요성에 응답하며, 가난하고 지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학교나 병원 등의 시설을 세워 주는 효과적으로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려는 것이다.

아직은 시작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지만, 약 3개월에 한번씩은 주요 인사를 초빙해 포럼을 운영하여 경제와 문화 정치의 문제들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자 계획 중에 있다. 아무튼 이제 시작하는 이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CEO들이 함께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직접 지도위원이 되어 함께 이 사역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이 기도모임을 통한 부흥과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기대해본다.







선 교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배원, 문귀향 선교사

춘천이 고향인 김배원 선교사(38세)는 강원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시절 큰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주님을 만났다. 그 이후에 삶의 변화와 함께 강원대학교 네비게이토 선교단체에서 캠퍼스를 중심으로 전도에 힘썼으며 춘천등부장로교회에서 파송되었다.

몽골은 아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부바와 브리야트 공화국, 남쪽으로는 중국의 신강 위그루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구는 약 270만 명이며, 합하 몽골족이 77.5%, 카작족이 6.1%, 브리야트족이 1.6% 등 총 17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한반도의 약 7배(남한의 16배)로 수도는 울란바타르이며, 기타 다르항, 에르드네트 등의 주요 도시가 있다.



1924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후 70여년 이상 정치, 경제적으로 구소련에 의존하여 성장해 왔으나, 1992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원조가 중단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특히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빈부 격차의 심화, 실업률 증가, 전문 인력의 부족, 생산설비 부족 등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몽골은 월 소득 20달러 미만의 가정이 전체 국민의 40%에 달하며 이러한 현상은 편모가정인 경우와 시골로 갈수록 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빠른 자본주의로의 전환으로부터 극심한 부정부패, 알콜 중독, 60%에 달하는 이혼율, 낙태 또는 출생 후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등으로 매우 혼탁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출산장려로 전체 인구 중 30세 이하의 젊은층이 65% 정도에 달하지만 이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많은 몽골인들이 가난, 흑독한 기후, 질병, 가정과괴 등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으로는 1992년 이후 전통문화의 복구, 민족주의로의 회귀를 외치며 국민 대부분이 라마불교와 샤머니즘을 믿고 있지만 명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 법상에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정치권과 라마불교의 결탁으로 교회등록이나 공식적인 집회 등이 방해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교육, 의료, 봉사, 문화 등의 NGO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몽골에는 전체 220개 교회에 21,588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8년 5월에 비해 2.9배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 5월에 비해서는 1.75배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6년간 연평균 기독교성장률은 50%에 달해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 인구대비로는 0.872%로 아직까지는 복음화율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몽골을 침략한 역사가 없고, 기타 민족, 언어, 풍습 등이 유사하여 한국인에 대한 몽골인의 인상은 대체적으로 좋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선교사들에게 장점이 되어 전체 선교사 400여명의 과반수 가량이 한국인일 정도이다. 그렇지만 능경사회와 유목사회의 배경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가 상당하며, 더욱이 지난 70년간 러시아의 지배적 영향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립식의 사고와 문화도 많이 잔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배원 선교사는 2003년 8월에 몽골로 파송되어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김배원 선교사는 몽골국제대학의 국제경영학과 교수로 일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들의 주요 사역은 일차로 몽골내 주요 대학(MIU, 몽골국립대학, 국립기술대학, 국립사범대학, 재정경제대학, 인문대학 등)에서 전도와 양육을 통해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아울러 몽골국제대학에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민족인 브리야트, 투바, 야쿠트족과 중국내 내몽골족, 카작족 등의 다민족 학생들 약 100여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잘 양성하여 졸업 후에는 이들을 본 민족으로 재파송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있다. 일례로 슬라바라는 한 학생은 등시베리아 최북단에 있는 야쿠트지방에서 왔는데 자신의 집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 옆이라고 한다(겨울에는 -60이상 내려간다고 함).

매일 함께 모여 성경읽기, 기도 등을 통해 주님을 배워가고 있으며, 매주 1-2회 정도는 캠퍼스가 밀집되어 지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기도 한다. 소수의 준비된 학생들에게는 가정을 오픈하여 함께 생활하며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훈련공동체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여름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번 훈련프로그램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고 배우고자 하는 좋은 영혼들을 많이 보내 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좋은 제자로 잘 성장하고 갖추어지도록 기도하자.

아내인 문귀향 선교사(31세)는 강원대학교 한문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illegible] 사와 동일한 네비게이토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으며 결혼 후 1년 만에 [illegible] 과 파송되었다. 자녀로는 아들 상진(1세)이 한 명이 있다.

이재/김미미, 춘천교육청 신우회



KTT 건국항공여행사
KUNKUK TRAVEL CO.,LTD



KUNKUK.TRAVEL.CO.,LTD
김 진 표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말호광장에서 강대후문 방향)
tel 033-251-2292 fax 033-252-2292
h.p 011-9058-2290
e mail jp1015@daum.net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웰빙 삼계탕 장 삼 원
귀한 분을 모신다면 장삼원으로 오십시오!
건강을 생각한 혼(魂)이 담긴 삼계탕,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 메 뉴
장뇌삼 삼계탕 · 한방 삼계탕 · 닭도리탕 · 한방백숙
※대형주차시설 완비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방향 500m지점
예약문의 (033)254-9191 · 9199

세계를 품는 교회

춘천지역의 의미있는 교회탐방 순서로 열린교회(신성균 목사)편입니다.



비전 있는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이며,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 공동체이며, 교회는 사람의 재주나 물질,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대로 주님이 일으키시고 세워 가시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는 권능으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거룩한 곳이다. 이 비전을 본 순복음열린교회는 1989년 10월 3일 마16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천국의 문들이 열린 구원의 꿈으로 시작하였다.

열린교회는 "오늘은 춘천, 내일은 강원과 한국, 모레는 세계를!"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신성균 목사와 등역자 손우헌, 서정학 전도사가 섬기고 있고, 그 깃발 아래 모여든 성도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띠를 두르고 달려가는 주님의 군대이다.

목회에로의 부르심

신성균 목사는 강원도 간성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접하였다. 그러다가 7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였다.

신목사는 현직 강원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이다. 중고등부들과 청년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던 신교수는 말씀에 깊이 매료되고, 또 학생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 열심히 기쁨으로 신학공부(84년 졸)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던 30대 젊은이의 갑작스런 죽음을 지켜보며 삶의 덧없음과 하나님을 향한 목회의 소명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92년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함께 오랫동안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아르헨티나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사임하게 된 호산나교회의 권오묵 목사를 통하여 교회목회에 대한 청빙을 받게 된다. 93년 8월 목회를 시작한 신목사는 후에 호산나교회를 열린교회로 개칭을 하였고, 또 온의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며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과정을 겪으며 침례교단에서 순복음교단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숱한 목회의 난관을 겪으면서 지금 있는 퇴계동에 200여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며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열린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역복음화를 통한 춘천의 성시화의 기치를 높이 든 교회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목회관에 대해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신목사는 힘주어 말한다. "목회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는 양들의 목자장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멈추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두루 찾아다니며, 구원 받은 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신목사는 바울의 본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학교에서 충분한 사례를 받고 있기에 교회에서는 자비량으로 봉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사역하고 있다.

성시화를 꿈꾸는 교회

신목사는 교수티도, 목사티도 없다. 시골의 순박한 아저씨처럼 보인다. 열린교회 예배당도 신목사를 닮아 아파트 사이에 있으면서도 투박하다(닙춘천역 뒤, 퇴계동 대한통운마트 뒤에 위치).

성시화에 대한 그의 행보 역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있다. 성시화에 있어 그는 연합회에서 행하는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성시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각종 연합회 행사가 있으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적극 참여하고 있다. 둘째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며, 셋째는 개교회의 적극적인 부흥을 통해 성시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기독교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이며, 이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이 가정, 도시로 진보한다는 것이다. 신목사의 이러한 확신은 예배당 문 앞 책꽂이에 꽂힌 그의 신학석사논문 '부흥운동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열린교회의 11개의 목장이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성시화에 일조하는 부흥을 세벽에 내리는 이슬처럼 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다시 있기를 바란다."는 비전의 마음을 드러낸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전 4:11-12)는 말씀처럼 이 도시를 위해 묶이게 된 것에 감사해한다.

선교하는 교회

얼마 전(6월 17-22일) 신목사는 일본선교를 다녀왔다. 그가 본 일본은 '즉음의 땅'과 같다고 한다. 과거 백제가 일본에 잘못된 것을 전했는데, 이젠 우리가 다시 좋은 것을 전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열린교회는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중국, 싱가포르, 아프카니스탄, 베트남, 미국, 일본, 방글라데시, 인도에서 선교사로 수고하는 이들과 동역하고 있다. 열린교회는 선교에 있어 사역의 주체가 주님이시고, 또한 선교사는 그들의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기에 선교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믈질과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11개의 목장과 목자들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며, 선교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욱 간절히 느끼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영어교수인 신목사에게 영어를 잘 하는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그의 성실하고 소박한 성품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춘천시 퇴계동 426-8 ☎ 253-7227
/ 취재 이영규, 사진 김미경]



• GBT비전기도회
일시 : 7월 4일(월) 저녁 7시
장소 : 서울 삼광교회(사당동)
말씀 : 윤누가 선교사
(GBT 행정대표, 중앙아X국 K종족 사역)

• GBT춘천지부 기도회
일시 : 7월 11일(월) 저녁7시
장소 : 춘천 에덤교회(팔호광장, 구 한국노총 건물)
말씀 : 이수민 선교사(중앙아X국 A종족 사역)

• 청년선교세미나
일시 : 7월 30일(토) 오후3시
장소 : 춘천 에덤교회
말씀 : 정민영 선교사
(동남아국 M종족 사역, WBT국제이사, ADI대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언어로"

성경번역선교회(GBT)는
아직도 성경이 없는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성경번역과 문맹퇴치 사역과 개발
평역사업을 통해 말씀에 부라서리는 근공한
토착신앙중심지를 새워주기 위해 새원진
조파, 선교박사원 등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잃
신교회(WBT와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www.gbt.or.kr

문의 : 김대원 간사 011-367-6085, aiya79@hanmail.net

역대하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춘천 에덤교회 2005년 7월 12일(화) 오후 7시-10시
(www.jedam.net 033-256-8786
팔호광장에서 후평동방향으로 50m 구 한국노총회관)
문의: 권기찬 목사 (011-367-4618)

◆ 원주 원당교회 2005년 7월 11일(월) 오후 7시-10시
(033-746-1255 단계동 동보렉스 뒷편)
문의: 손수진 목사 (010-6737-1255)

강사 : 강정주 교수
(계신대학원대학교)

한국성서유니온 강원지부

소개합니다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명신)은 섬김이념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주 희전민 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가정개발사업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아동, 청소년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의식을 유도하여 보다 발전된 지역사회를 형성하며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1976년 개관이래 78년 10월 국내 아동결연사업 실시, 92년 4월 재가복지봉사센터 개소, 96년 1월 시설 인가 노인무료장수식당 개소, 어린이집 비형(180명 이상)인가, 98년 9월 "한국선명회" 법인 명칭을 "월드비전"으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월드비전의 주요 사업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의 5대 사업이며 기타 사업으로 재가복지사업, 정선SK가정방문목욕사업,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청소년공부방, 결식노인식사배달, 결식아동도시락, 노인정보화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5대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복지사업: 청소년멘토링, 아동 · 청소년 방과후 교실, 가족지킴이, 사례회의
2. 지역사회보호사업: 아동생활비(우유급식), 보건의료, 생활비지원, 물품지원 아동 · 청소년 교육비 지원, 위기지원, 선물금, 지정후원금
3. 지역사회조직사업: 등록가정 사랑방 모임, 교회와의 협력강화사업, 지역조사 아동권리위원회, 지역사회옹호사업, 자문위원회의, 편의시설제공, 후원자조직관리 자원봉사자조직관리, 홍보마케팅사업, 직원연수 및 교육, 실습지도, 사업평가
4. 교육문화사업: 아동방학교실, 노인대학(수학여행 · 캠프), 등록가정 가족나들이, 아동 · 청소년 캠프, 파란글 꽃그림 잔치, 어린이연합찬양축제, 춘천연합찬양축제 경로잔치, 어린이합창단, 청소년겨울여행, 청소년만남의 광장
5. 자활사업: 자활도우미지원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월드비전의 핵심가치(①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②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③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④우리는 청지기입니다. ⑤우리는 동역자입니다. ⑥우리는 응답합니다)에 맞추어 지역교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증거사업을 지역교회와 함께 동역하고자 하며 월드비전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 월드비전춘천 ☎254-7244 FAX 251-1164 / chuncheon@worldvision.or.kr]

영혼의 양식

빈집으로 살지 말라 [마12 : 43-45]



백낙영 목사 (남부제일교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잘 점검하고 살펴 보아야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자신을 살피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우슈비츠 가스 살인감옥에서 살아나온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meaning」에서 인간의 공허감과 무의미를 설명하면서 공허감과 무의미에서 시달리는 인간상태를 존재의 진공상태라고 말했는데 진정 사람의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적인 말씀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귀신은 사람에게서 쫓겨 날 수는 있으나 다시 역습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분히 몰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으나 그 악은 사멸하지 않고 언제나 역습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귀는 믿는 성도로 하여금 이떻게 하던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훼방하고 있으며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마귀의 역습을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근신하라 깨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와 악의 권세를 몰아낸 후 자신을 가만히 게으름에 방치하면 오히려 마귀는 더 크게 역사하여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어 아주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많이 먹는 애주가가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나쁜 습관인 술과 관계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깨달아 회개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정돈되고 깨끗이 소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 세사람에게는 큰 공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술로 보내던 시간들, 또 술친구와 나누던 많은 대화들, 또 술집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들과의 관계로부터 회개하면서 마음정리를 했는데 바로 이 세사람이 이 많은 공백을 메울 만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로 가만히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악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는 믿으나 오히려 그 심령이 더 많이 망가진다는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전에 행하던 악한 습관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공백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악을 물리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선을 배양해 나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원에 잡초를 제거한 채로 가만 놔두면 또 잡초 때문에 관리가 아파지므로 잡초를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감자라도 심어놓는 생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마귀의 역습을 받아 신앙이 형편없어질까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의 삶으로 진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몰아내고 악을 이기는 비결은 나의 심령상태를 빈 공간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을 메울 만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자신을 드리고 쉴 사이 없이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창조적 전진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함,스티커,전단지,포스터,카다로그,서류봉투,서식
행사용 단체복,유니폼,단체T,현수막,실사현수막 , 판촉물,행사 기념품
종합광고기획사
Top Pia
디티피아
대표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TEL : (033) 263-5152
E-mail : chsch1784@yahoo.co.kr FAX : (033) 242-5121

춘천에서-전국으로, 세계로...
예수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치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무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세요~

여름철 장염으로 고생하지 마세요

여름이 왔습니다.
특히 음식을 조심하여야 하겠지요.
상한음식 아니 조금만 의심이 되어도 아깝게 생각지 마시고 버려야 하겠지요.
그러기 전에 음식 관리를 잘하시고 먹을 만큼만 요리를 하심이 현명한 방법이지요.
장염은 흔히 발병하는 여름철 질병입니다.
여름철 이 장염으로 고생하지 마십시오.



여름철 장염은 쓱음, 쏙식 또는 상한 음식, 날 음식, 냉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먹은게 주원인이에요. 이 외에 더위나 냉하고 습한 환경도 장염을 부추이지요. 이럴 경우엔 열에너지를 돋우는 음식들을 먹어서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어야합니다.

부추죽을 먹습니다. 체력회복에도 좋아요. 쌀죽을 끓이다가 부추를 잘게 썰어 넣고 한 번 더 살짝 끓인 후에 뜨거울 때 먹습니다.

사과죽도 좋습니다. 사과의 펙틴은 장내에 유산균이 번식하는 것을 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지요. 쌀죽에 껍질째 갈은 사과즙을 넣고 조금 더 끓인 뒤 소금으로 간을 맞춰 먹습니다.

녹차와 수정과도 효과만점이랍니다. 장염증 및 점막을 아물게 하고 지사 역할을 하거든요.

주의할 점은 설사를 급하게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음식, 찬 음식, 쓴 음식을 피하고, 식물성 섬유가 많은 해조류나 채소류, 탄산음료, 조미료, 기름기 있는 음식 등과 장 안에서 발효하기 쉬운 콩류와 생채소는 염증을 악화시키니 피하도록하세요.

여름 감기 다스리는 법~

여름철 감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지요. 너무 높은 온도 때문에 피로해서 오는 감기와 지나친 [illegible]등으로 인해 몸이 치쳐서 오는 감기... 일단 여름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과 칼륨 섭취에 신경써야하고 과음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일단 감기에 걸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열이 있는 동안은 목욕은 피하도록 하세요.

감기 초기에는 파의 흰 부분을 썰어 된장에 버무린 다음 끓여 마십니다. 혹은 모시조개로 국을 끓여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요.

중기라면 마늘과 무를 권하고 싶군요. 마늘을 저며서 볶아 씹어 먹거나 무를 썰어 꿀을 부은 후에 하룻밤 재웠다가 우러난 무꿀즙을 한 수저씩 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회복기에는 진한 율무차나 뜨거운 오메차를 수시로 복용합니다. 오메란 말린 매실을 검게 구운 것을 말하는데 이 오메 두개를 뜨거운 물 100cc를 붓고 우려낸 다음 흑설탕 1티스푼을 타서 마시면 된답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민간요법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서 눈이 시렵거나 침침하다던지, 눈물이 잘 나고 핏발이 잘 선다면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럽 땐 간과 신장을 강화 시켜주는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요.

결명자가 첫손에 꼽힌답니다. 옛날부터 눈을 밝게 한다는 시력회복제로 널리 알려진 결명자는 이뇨 작용과 완화 작용까지 있어서 소변과 대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볼 수 있이요. 결명자를 프라이팬에 볶아 짙은 황갈색이 될 때까지 충분히 달인 후 자주 먹도록 합니다.

구기자는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을 증강시킵니다. 구기자 20g에 물 500cc를 넣고 끓이세요. 물이 반으로 줄때까지 끓인 후 자주 마십니다.

전복죽이나 회가 도음이 됩니다. 전복은 체내 필수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눈의 열을 떨어뜨려 즙니다. 눈이 피로할 때 피로회복 효과가 크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왔다가 여름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부]





예 향

제일 무서운 사람

전영우 목사의 예화집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안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책 안 권 읽은 사람은 아무도 알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책 안 권이 진리입니다. 그것으로 진두를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두 권 읽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버는이 기보다 먼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두 권 읽고 나서 막 떠들면 그때도 역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네 권 읽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졸라서 그런 거니까 결국 우리는 기다려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일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지현 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 포 / 토 / 에 / 세 / 이 /

착 한 동 네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는
자신을 악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는
자신을 선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산다.
참으로 주님을 본 사람들은
자신을 볼 수밖에 없으련만
빛 가운데 있다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이렇게도 세상에 많은데
함께 떡을 먹던 가룟인 유다가
서슴없이 멸망의 길 내달릴 때
주님의 마음 얼마나 서늘하셨을까
사람들 마음에 있는 빛은 시들어져가도
빛이신 주님은 세월가도 한결같다.
마음 아픈 사람들 때문에
이리 방황하지만
빛을 찾아 빛의 세상에 왔으니
나 빛으로 살리라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고
못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는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산다

시. 서규 환 목사 (춘천명성성결교회)

감사의 마음

십자가평화대행진

지난 춘천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십자가평화대행진 행사에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께 늦었지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장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장로교회
동춘천감리교회
식사감리교회
성암감리교회
신사우동장로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예광침례교회
중앙성결교회
춘천명광장로교회
춘천남부제일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장로연합회
춘천침례교회
평화감리교회
효자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동신장로교회
삼회임업사
서부감리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신매감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이용규장로
창대감리교회
춘천광염감리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직장선교회
천일기획
하나로

행 사 안 내

▣ 제12회 춘천어린이 연합찬양축제 개최 ▣

춘천지역 각 교회의 어린이성가대 및 찬양대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어린이성가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일 시 : 2005년 9월 3일(토) 오후 4시
2. 장 소 : 석사감리교회
3. 주 최 : 춘천기독교연합회,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4. 주 관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5. 프로그램 내용
   제1부 - 개회식
   제2부 - 찬양축제
   제3부 - 연합성가
6. 문 의 : 254-7244

※ 축제에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사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성서한국

성 서 한 국 운 동



성서한국운동이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을 위해 복음으로 민족과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고, 사회적 사명에 헌신할 다음 세대를 발굴, 동원, 훈련, 지원, 파송하는 하나님나라운동이다.
이 운동은 선교한국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운동으로 자리 메김을 하고 있는데, 본 운동의 공동대표로는 손봉호 동덕여대총장과 옥한음목사, 이만열교수, 이승장목사 홍정길목사 등 이다.

성서한국의 목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성경에 입각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전도와 양육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운동으로, 직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청년대학생 중심의 운동으로 시작하며, 청소년과 직장인들까지 그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 그리고 영역적 그룹 모임 등을 통해 성경에 입각한 이론 및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고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성서한국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발굴, 동원, 훈련, 지원, 파송함으로써 민족과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8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4박 5일 동안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성서한국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성서한국대회는 사회선교사 1000명을 발굴하여 한국사회 각 영역에 파송하고, 기존 기독운동단체들의 연대 및 새로운 사회선교기관의 개척기반을 마련하며, '사회선교'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제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자료제공 성서한국, 금정리 편집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
성서한국

우·리·가·족·주·치·의
고석연 가정의학과 033-254-0121
진료과목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료시간
월, 화, 목 : 9:00~7:00 수, 금 : 9:00~6:30
토 : 9:00~4:00 (점심시간 : 1시~2시)
주일은 쉽니다.
검사종목
예방접종, X-ray검사, 고지혈증 검사, 심전도 검사, 뇨분석검사, 당뇨 · 혈당 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 검사, 갑상선 호르몬, 폐기능 검사, 물리치료
춘천시 후평동 한신아파트 건너편
찾아오시는 길

산채골.com 별관


• 산 채 보 리 밥
(화 천 에 서 채 취 한)
• 훈 제 삼 겹 살 전 문
장명숙 집사
(나 눔 교 회)
후평동 대우아파트 앞
Tel. 241-8134

♡ 교역자 수련회



지난 5월 9일 (월) ~ 10일(화) 교역자연합회(회장 김유식목사)에서는 춘천지역의 초교파적 목회자들 부부동반으로 거제도를 은혜 속에 다녀왔다. 약 55명의 목회자 부부가 함께 한 이 행사는 거제도와 외도를 겸쳐 포도주용소합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를 통해 목회 중에 지친심신을 단련하고 지역목회자들간의 깊은 친교를 통해 연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소리엘 라이브 콘서트



CBS 춘천방송은 개국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지난 6월 4일(토) 오후 7시 "소리엘 라이브 콘서트"를 한림대학교 원송아트홀에서 가졌다. 소리엘은 'New Start',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세번이슬 같은', '아곱의 축복',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 끝까지' 등 자신들의 히트곡과 함께 무려 15곡을 선보였다. 이날 원송아트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 2005년 화천 비목문화제



화천기독교연합회 (회장:박명호목사/총무:이진기목사)는 2005년 화천 비목문화제의 일환으로 6월 5일(주일) 오후 3시 화천군예술회관에서 모든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약 50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한창의장이며 세계군인회회장인 이권섭장로가 '통일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7사단장, 화천군수, 군의회의장 등이 참여하여 그 진지하고 뜨거운 열기를 더하였다. 매년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본기도회를 통해 군민들이 하나 되고 통일의 날이 속히 오며 지역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뤄지길 소망해 본다.

♡2005 교경연합부흥성회



2005년 춘천복음화와 경찰가족을 위한 연합부흥성회가 6월 12일(주일)부터 15일(수)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평화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회장 최현묵목사(남춘천침례교회), 경목신장 김유식목사(한신장로교회), 평신도회장 김인배장로)가 주최하는 이번 연합부흥성회는 수원 한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종길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첫날 집회에는 허만영 경찰서장이 축사를 하였고, 경찰악대의 연주와 신우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열기가 뜨거웠다.

♡ 아가피아 독서스쿨 개강



교육의 기독교적 대안을 연구하며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인 아가피아 독서스쿨이 지난 6월 16일(목) 오후 7시 월드비전 3층 강당에서 개강하였다. 아가피아 미션(회장 김철안 목사)이 주최하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아가피아 독서스쿨은 약130여명 정도가 참여하여 앞으로 17주 동안 교회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의 학습혁명에 대한 강의와 교회 안에서 운영 가능한 독서캠프 프로그램 등을 다루며 매주마다 목요일반은 오후 7시에, 금요일반은 오전 9시 30분에 각각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 춘천 3기 아버지학교 개강



6월 11일(토) 오후 5시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는 약 130여명의 수강생들이 모인 가운데 춘천 3기 아버지학교가 개강을 하였다. 앞으로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5주간 진행되는 아버지학교를 통해 춘천의 아버지들의 회복을 기대한다.

♡ 2005 춘천시장기 국민생활체육탁구대회



춘천시가 주최한 2005년 춘천시장기 국민생활체육탁구대회가 지난 6월 18일(토) 오후 2시 춘천농공고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헌곤목사(새순교회), 염명등목사(사랑교회), 김왈욱목사(안디옥교회), 김은선목사(굽이있는교회)가 춘천기독교연합회 대표로 참가하여 8개 팀중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 CBS춘천방송 운영후원회 총회



CBS춘천방송 운영후원회는 지난 6월 23일(목) 오전 11시 신성감리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김창수목사(신성감리교회)가, 당연직부회장에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유진형목사가, 부회장에 김광국목사(성광장로교회)와 이원호목사(소양성결교회)가 선출되었다. 김창수 신임회장은 "CBS춘천방송의 신사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송설교 참여 및 후원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김창수목사는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강원기독교연합회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와 목원대 재단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 최 순 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골목 왼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맛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진정한 웰빙 생활,
하고 계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습관!
이롬 황성주 생식
◆ 자연 그대로 재배한 천혜경 농수산물로 만들어 집니다!
◆ 벤처기업을 인증받은 이롬 생명과학연구원의
탄생시켰습니다!
◆ 새로운 포장으로 더 신선하고 편리하게 만나세요!
033)257-1926/011-372-1926
조 준 임 권사

사 설



교육과 삶의 의미

박상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7월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여름교육행사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그 결과는 혹 미지수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좌우지간 7월이면 교육부 행사가 진행된다.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도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셔서 전도와 함께 교육 할 것을 명하셨다. 참 신앙인으로서의 교육을 명하신 것이다. 이는 필수적이다.

근간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GP총기난사사건은 상상을 초월한다. 몇 해 전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결론은 교육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삶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주변에서 '의미(意味)'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예컨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어!"라고 하던지 혹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와 같은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 심지어는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에서도 이런 유사한 종류의 질문과 의문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된다.

우리사회의 구조상 아무도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혹은 노인들에게 삶의 참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깨닫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소에 미웠던 놈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은 이미 그 자신의 존재성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는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힘겹고 잔인해 보일지라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민하고 뼈저리게 아파하는 경험을 가지게 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 속에서 자아의식의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목적론적인 질문 속에서 인생의 방향성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인생의 가치론적인 질문 속에서 자신의 선택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 총구를 전우를 향해 드는 일은 우리의 잘못된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문제는 아닌지 타진해 보고 교회교육부터 삶의 참의미를 깨닫도록 깨우쳐 주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 알려드려요

◆예수사람운동
1) 뚝동 모임
일시: 7월 9일(토) 오후 6:30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학생부실
2) '예수캠프 캐빈 모임'
일시: 7월 16일, 23일, 30일(매주 목 오후 7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학생부실
3) '예수캠프'
※1차 예수캠프: 8월 1일(월)~3일(수)
※2차 예수캠프: 8월 4일(목)~6일(토)
※장소: 화천반석수양관
※주제: 예수님의 열두제자
※강사진: 1차 한균목사, 백종은목사, 2차 이장호목사, 이원호목사
※문의: 244-5400/018-305-5171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도시전도'
일시: 7월 1일(금) ~ 4일(월)
장소: 3박 4일동안 춘천시내를 들아다니며 전도
2) '간사 ITS'
일시: 7월 11일(월) ~ 15일(금)
장소: 서울 부암동 CCC 선교 훈련원
3) '일본단기선교"
기간: 7월 12일(화) ~ 25일(월)
4) '아가페 모르지요'
일시: 7월 15일(금) ~ 19일(화)
장소: 전남 완도군 여서도
문의: 254-5776 양상훈 간사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화요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동부장로교회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선교대회 'Open 2005'
일시: 8월 16일(화)~19일(금)
대상: 선교 관심자, 교역자 및 일반
인원: 2000명 선착순 마감
문의: 02-3142-1061~2, 3142-1205~6
3) 2005 여름 전국 Youth Camp
주제: NEW
일시: 7월 25일(월)~28(목)/ 3박 4일
장소: 백석대학, 천안대학교
인원: 선착순 2000명(학생, 자원봉사자 포함)
참가대상: 청소년, 자원봉사자
참가비: 1차-55,000원(6월 20일까지),
2차-60,000원(7월 18일까지)
연락처: 042-637-0725, www.ymkorea.net

◆JDM
1) '말레이시아 선교훈련'
일시: 7월 4일(월) ~ 15일(금)
2) '청소년 수련회'
일시: 7월 25일(월) ~ 28일(목),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3) 세계선교대회(MISSION '05)
일시: 8월 1일(월) ~ 6일(토) 장소: 강원대학교
문의: 252-3192

◆IVF
1) '한국IVF 전국리더대회 준비위원모임'
일시: 7월 7일(목) ~ 9일(토) 장소: 천안호서대 아산캠퍼스
2) '한국IVF 전국리더대회'
일시: 7월 11일(월) ~ 15일(금) 장소: 천안호서대 아산캠퍼스
3) '강원(춘천)IVF 단기선교(비전트립)'
일시: 7월 18일(월) ~ 8월 6일(토) 장소: 중앙아시아K국 등 5개국

◆어린이 전도협회 '3일 클럽'
일시: 7월 4일(월) ~ 8일(금)
장소: 대전중문교회
문의: 253-1443, 242-8291

◆교경협의회 월례회
일시: 7월 6일(수) 오전 11시
장소: 강촌감리교회 문의: 252-1717

◆성서유니온 독자세미나
일시: 7월 12일(화) 오후 7시 장소: 예담교회
강사: 강정주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
문의: 권기찬 목사(011-367-4618)

◆애비티트 사랑의 집짓기 '번개건축'
일시: 8월 1일(월) ~ 6일(토) 문의: 254-0009
장소: 춘천 신북읍 4리 162-1(산천초교 뒤)

◆GBT
1) GBT춘천지부 기도회
일시: 7월 11일(월) 저녁7시 장소: 춘천 예담교회
2) 청년선교 세미나
일시: 7월 30일(토) 오후3시 장소: 춘천 예담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후원자명단

춘천광명장로교회	춘천광염감리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춘천감리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성결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성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신사우동장로교회	신성감리교회	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은누리장로교회
평화감리교회	후평장로교회 .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계좌: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서부감리교회
복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임신교회	주천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의암기도원
엔투어	유림남갈비	초인태라어
디티피아	농협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홍 수
이 용 규	이 원 기	이 판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변제일성결교회
담임목사 손광오
주의 전에 채워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서 나아갈지어다"[시 100:2]
200-938 춘천시 온의동 73-4번지 ☎ 253-9195 Fax 255-1150
Faithink.com.ne.kr/jung-Ang.htm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광염교회
담임목사 박인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말씀이 넘치는 부흥한 교회
영혼구원에 열심 있는 교회
사랑의 실천이 넘치는 교회
치유에 동참하는 교회
과감히 갱신하는 교회
200-18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28-8 ☎ 033) 263-5007
www.ccls.or.kr